



진안 용담면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연합봉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위원들과 용담면 자원봉사단, 부녀회, 용담면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은 14일 용담면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개선 연합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 대상 어르신은 배우자와 자녀 등 보호자가 없는 홀몸노인으로 수년간 집 안팎 곳곳에 주워온 물건과 버리지 못한 물건을 쌓아두어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 등으로 뒤덮여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어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대상자 집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옷가지를 정리하고 목은 때를 씻어주는데 구슬땀을 흘렸으며, 집안 내·외부 청소 및 집 정리 전반을 도맡아 처리했다. 15일에는 자원봉사센터 빨래 봉사가 연계 진행 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전북기계공고 총동문회, 백미 기탁

군산시는 14일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백미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이성구 국립전북기계공고 군산지역 동문회장 및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성구 회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김제시 새마을회, 폐농약병·농약봉지 수거 나서

김제시 새마을회(회장 함길권)는 14일 시민운동장에서 휴살리기 환경살리기운동 일환으로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모으기 사업을 전개했다. 새마을지도자 김제시협의회(회장 박용운), 김제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연순), 새마을문고 김제시지회(회장 최연화) 등 19개 읍면동 새마을회원 100여 명은 연중 수거해 둔 폐농약병과 농약봉지를 모아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배출했다. 함길권 새마을회장은 "김제시 새마을회는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폐농약병과 농약봉지 무단 소각 및 투기 근절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 가족들과 탄소중립실천 환경살리기 운동을 적극 실시하여 살기 좋은 내 고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군·청송군 재향군인회 무주서 뭉쳐

국민화합 친선 교류 영호남 행사 개최... 청송군,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도 기탁

전북 무주군 재향군인회와 경북 청송군 재향군인회가 14일 무주에서 뭉쳤다. 무주수련원에서 양측 회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민화합 친선 교류 영호남 행사'는 지역을 넘어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재향군인회 하현용 회장과 청송군 재향군인회 김세중 회장, 황유신 여성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무주군 재향군인회 하현용 회장은 "무주와 청송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25년간 영호남의 갈등과 이념을 초월해 국민화합의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친선 교류 행사가 회원 상호 간 단결과 친목 도모를 넘어 두 지역과 단체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간 지속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재향군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상호 연대와 친목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민 안보 의식을 고취해 지역 안보를 강화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과 청송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1998년 10월 29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호남 화합을 이끌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제13회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회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지난 12일 정읍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참여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맺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떡메치기, 케이크, 냄비받침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난타와 밴드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느티나무 봉사대와 마을점점에서 김치전과 핫도그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 독거어르신에 사랑의 빵 나눠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한정문, 민간위원장 박세근)가 최근 협의체 위원 및 가족 20여 명이 사랑의 빵 만들기에 참여하여 직접 만든 빵과 두유 세트를 식생활 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 등 60가구에 전달했다. 행복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사업이 결정된 이후 복지이장과 협의체 위원들의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식생활 취약 상태에 놓인 60세대를 선정했다. 협의체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나 청장년 세대로 홀로 식생활을 하다 보니 식생활 사각지대에 놓여 식사 문제와 영양 문제에 노출 되어있는 대상으로 이번 빵과 두유 지원을 통하여 식생활과 영양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홀로 생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겨울철 고독사 예방 차원의 안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사랑의 빵 나눔행사는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협의체 회원 및 가족이 함께 빵 만들기를 실시하여 대상자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으며, 협의체 기금은 오수면 협의체 위원, 착한가게 등 지역 주민들의 정적기 후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박세근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통하여 식생활의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식생활 해결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정문 공공위원장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과 사랑의 빵 나눔 사업에 동참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드리고, 협의체의 이러한 활동이 우리 지역에 기부 및 봉사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김제시 백산면, 이장회의로 시정홍보의 장 마련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은 지난 13일 11월 중 1차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장들 간 소통 강화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백산면 장학회에서 추진하는 장학생 선발 홍보와 함께 시 인구정책 등을 안내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백산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일정을 논의했다. 안강용 이장협의회장은 "추수로 바빠 이장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오랜만에 개최하는 대면 회의에 많은 이장님께서 참석하여 반갑다"며, "면장님을 중심으로 면정발전에 더욱더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회장 조태봉)와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회장 고명철)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조산동 대성전기공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장은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원이 함께 정성으로 배추김치 200박스(500포기)를 담아 북한 이탈주민 가정에 40박스, 다문화가정에 30박스와 소의계층에 전달되었다. 조태봉 협의회장은 "남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소의계층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